

# 基督教의 社會關心

金 權 昊

I. 序 言	C. 聖經의 觀點
II. 예수님의 社會關心	IV. 正義의 實現
A. 天國과 現世	A. 統治는 奉仕의 길
B. 예수님의 態度	B. 社 會
III. 제자들의 社會的 關心	C. 國 家
A. 神的 正義	V. 社會에서의 公義
B. 人間의 正義	VI. 結 言

## I. 序 言

現代 人間이 오늘날 어디로 가든 接하게 되는 問題는 急激히 發展하는 20世紀 社會에서 우리가 意義있게 살 수 있는가 하는 問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實存하는 社會 속에서 解決할 수 없 어 보이는 많은 問題들, 例를 들면 Inflation 雇用問題, 犯罪, 不正腐敗 都市病理, 非人間化, 貧 困, 汚染, 人格의 墮落, 人種問題 등 우리는 物質의 豐饒로써 高潔하고 尊嚴性을 維持하여 生 을 維持할 수 있다는 偏見으로 人間의 高貴性을 喪失하지 않은 것인가? 萬若 그렇다면 다시 回復할 수 없을까? 1) 우리는 이러한 質問들을 많이 하게 된다. 特히 社會學者나 宗教人들은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質問에 對한 Neo-Captalist, Neo Liberalist, Neo-Marxist들의 여러 가지 對答을 들어 불만한 價値가 있겠으나 本 小論에서는 이것을 다루고자 함이 筆者의 뜻이 아니므로 言及을 避 하고자 한다. 그러나 萬若 人間과 社會에 對한 聖經的 觀點이 우리의 政治制度, 經濟, 教育의 諸 制度에 注入될 수 있다면 우리 人間의 人生의 高貴性이 다시 얻어질 수 있다는 假定에서 聖 經과 社會的 關心<sup>2)</sup> 關係에 있어서 聖經的 觀點의 輪廓을 나타내고자 함이 筆者의 意圖이다.

1) Cf. Theodore Rozak, *Where the Wasteland Ends*, New York, 1973.

2) 더욱 仔細한 것은 Robert Lee Carvill, ed., *Will All the King's Men?* (Tronto, 1972)을 參考하라. 이 論文은 *International Reformed Bulletin*(1972)에 要約되어 실리기도 했다.

## Ⅰ. 예수님의 社會關心

現代 社會에서 예수 自身이 社會改革의 한 사람이었으므로 社會的인 모든 면에서 能動的으로 對處하여야 한다고 부르짖는 基督教人이 대단히 많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예수님의 生活과 言行을 보아야 한다. 社會改革者는 人間生活의 모든 與件을 改善하기 爲하여 社會制度, 社會內의 聯關性, 即 貧富問題, 奴隸, 戰爭, 人種, 住宅問題 等 社會의 問題에 全關心을 直接 傾注하여 改革하려고 試圖한다. 예수님은 數萬名이 모인 聽衆가운데서 한 사람으로부터 相續問題에 對하여 그의 兄과 分配하여 줄 것을 付託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裁判長이나 物件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對答하였다. 이 簡單한 對答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性格을 暗示받을 수 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일보다 더 큰 任務가 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福音을 傳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sup>3)</sup>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重要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서 그가 社會改革家가 아님은 明白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社會問題 解決보다 더 큰 任務를 갖고 오셨기에 그의 中心課業은 社會를 改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社會的 關心(Social Concern)에 關하여 理解하기 爲하여서는 天國(Kingdom of God)과 現 社會生活(Social life)과의 關係를 살펴야 한다.

### A. 天國과 現世

天國은 現 世界와 두 가지 點에서 區別할 수 있다. 첫째는 그의 말씀(His Words)으로써 全 被造物을 支配하는 主님의 世界이다. 即 天國은 모든 被造物을 爲한 創造者의 命令과 秩序이다. 둘째로는 天國에서는 被造物은 王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人間의 高貴性은 王의 命令과 人間의 服從間의 相互 一致이다. 天國에서의 모든 被造物의 그 生活은 主의 말씀, 命令이며 主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被造物은 單純한 종이다. 우리 人間은 主를 섬길 때 우리 人間들의 生活은 天國市民으로서 善한 삶이 되는 것이다. 人間은 神에 服從하는 者인 同時에 神의 協力者라는 獨特한 地位에 있다.

人間의 高貴性과 善한 生活을 現 社會에서 喪失했음은 人類社會를 爲한 創造者의 命令과 秩序에 不服從한 理由이다<sup>4)</sup>. 「人間의 服從生活이 삶에 高貴性」이라는 말은 現代에 있어서 支持 받을 만한 思想이 아님은 明白하다. 現代 哲學者에게서나 藝術家에게서나 政治的 指導者들에게서나 或은 學校에서 人間은 服從에 벗어나 自由者이어야 함을 배워 왔기 때문이다. 服從하고 섬긴다는 것은 人間以下(Sub-human)의 노릇이라고 들어왔다. 事實 統治者와 被治者間의 鬭爭

은 自由爭取의 鬭爭史였으며, 近代 基本的 人權(Fundamental Human Right) 觀念은 天賦人權의 思想으로 發達하여 美·佛 革命의 人權宣言은 自由權의 基本權의 保障을 그 主要한 內容으로 하였다. 個個人에게 自由를 保障하여 주면 幸福을 追求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Thomas Jefferson은 美國獨立宣言文(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序頭에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平等하며, 造物主에 依하여 不可讓渡의 權利를 賦與받았으며 이러한 權利에는 生命, 自由, 및 幸福의 追求가 있다는 것을 自明한 眞理로 생각한다.” 佛蘭西 國民議會는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序言에서는 “……國民議會는 最高存在 앞에서 그 祝福과 加護를 바라면서 人間의 市民의 神聖한 權利를 다음과 같이 認定하고 宣言한다”고 밝히고 第一條에 “人間은 나면서부터 언제나 自由롭다. ……”라고 정하였고 國際聯合總會에서 採擇한 世界人權宣言(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第一條에도 “모든 人間은 나면서부터 自由이며……”라 宣言하고 있다. 그리하여 近代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個人의 自由權을 中心으로 形成되고 있다. 그러나 基督教에 있어서 人間에게 第一 基本的인 것은 人間의 自由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密接한 主從關係이다. 即 하나님의 主權下에 人間이 關係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에게 第一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 創造에 속하여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主權이 나타나야 한다. 이 第一 基本的인 것에서 推理할 수 있는 것이 自由이다<sup>5)</sup>.

人間은 自由를 爲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服從하게 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自由를 주시는 것이다<sup>6)</sup>. 그러므로 참 自由人만이 하나님과의 交際가 可能하며 또한 이 거룩한 交通은 自由에 있어서만 可能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에게 오기 爲하여 또한 봉사활동을 爲하여 人間에게 自由를 주셨다<sup>7)</sup>. 被造物이 하나님의 뜻에 服從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自由에 있어서 뿐이다. 가장 人格的인 참 自由者는 奴隸가 된 者나 獄에 갇힌 者일 지라도 自由로운 者가 되는 것이다. 自由는 神法(God's Law)을 服從하는 道德的 被造物의 상태이며 그것은 創造者와 被造物으로서의 人間과의 自然的 상태이며 이런 상태에서만 人間은 自由로 있을 수 있다<sup>8)</sup>. 그러므로 基督人의 自由는 어떤 共同體에서나 社會制度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人間은 直接 하나님께 對面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과 人間 사이에 무엇이 介入할 수 없는 것이다. 이 自由는 하나님 自身만이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Humanist들은 服從의 必要性(Necessity of Obedience)을 否定하였다. 이런 思想의 繼續的인 追求로 神的인 權威와 制度的인 權威를 無視하게 되었고 結局은 社會的인 無政府(Social Anarchy) 狀態에 이르고 만다. 無政府 狀態에 따르는 社會的 混亂(Social Chaos)을 防止하고

3) 누가 복음 12:14

4) 누가 복음 4:43

5) 창세기 3:1 ff.

6) 參考. E. Brunner, 「正義와 社會 秩序」, 全澤堯 譯, 9章, 思想界社, 1954.

7) 요한복음 8:36, 고린도후서 3:17, 갈라디아서 5:13.

8) E. Brunner, Op. Cit., p. 91.

9) Groen Van Prinsterer, *Ongeloof en Revolutie*, E. L. Hebben Taylor, *The Christian Philosophy of Law, Politics and the State*, the Craig Press, 1969, p. 241. 에서 再引用.

人權保護를 위하여 現代 思想家나 政治學者들은 社會契約(Social Contract)의 형태에서 그 타협을 제시하고 있다.<sup>10)</sup> 卽 自律의 各 個人의 同意에서 社會關係, 社會制度를 健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들 各 個人은 그들 自身이 만든 規律에 依해 統治된다고 認定한다. 이런 理由에서 國家의 基礎(Foundation of State)는 國民主權이며 被治者의 同意, 現代的 表現으로는 參主的 民主主義다. (Part-icipatory Democracy)이다. 이런 思想은 John Locke<sup>11)</sup> J. J. Rousseau<sup>12)</sup> Thomas Jefferson, Karl Marx등에 依하여 주장된 바 있다.

이들 모두는 人間의 王國(Kingdom of Man)을 세우기 爲한 것으로서 人間 自律性의 思想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聖經은 人間 自律性 思想의 假面을 벗기고 있다. 罪는 하나님의 善한 被造物으로서의 調和된 生活을 산산조각으로 파괴하고 말았다. 범죄는 人間生活에 있어서 崩괴의 바로 그 原因이었다. 이러한 崩괴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고 있는 天罰의 징조인 것이다. 聖經은 처음부터 罪는 調和있던 人間生活에서 네 가지의 파괴적 影響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 罪는 하나님과의 關係에서 나그네로 만들었다. 또한 살아 있는 말씀(The Living Word) 그리스도로부터 分離되었다. 하나님과 人間과의 유대관계는 人間存在의 全部를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原初的인 疏遠은 하나님과 모든 關係를 파괴하고 있다.

(2) 罪는 創造者(Creator)보다 오히려 被造物을 섬김으로 人間 人格內의 統一性(Unity)을 파괴한다. 이 統一性의 파괴는 人間으로 하여금 緊張과 不安과 挫折에 사로 잡히게 만들었다.<sup>13)</sup> 人間의 바로 그 特性은 섬기는 것이므로 眞神인 하나님(True God)의 背反은 人間으로 하여금 어느 곳에서나 그 代替物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 代替物은 被造物의 一面을 神格化한 것이다. 이런 想像的인 偶像은 人間에게 平和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人間은 새로운 偶像을 찾는데 급급하다. 이런 焦燥한 思想은 現代文化의 急速한 前進를 說明하고 있으며, 하나의 만족을 發見함이 없이 또 다른 하나를 熱望하는 人間들로 되어 버렸다. 聖經은 이런 內的인 緊張과 無限한 追求를 人間의 마음이 파괴되었음이라고 記述하고 있다.

10) 17. 18c에 있어서 大部分의 自然學者들은 自然法은 적어도 人間이 人間自身の 生命, 自由 및 個人의 能力이 허용하는 財產의 餘하한 享樂에서도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갖고 있다는 意味에서 모든 人間은 다른 모든 人間과 平等하게 한다는 것에 同意하였다. 그들은 또한 人間들은 自然의 狀態(卽 無政府主義 狀態)에서는 그들의 權利가 만족스럽게 保障될 수 없다는 것을 믿었다. 왜냐하면, 無政府 狀態에서는 人間은 그의 權利를 保障하기 爲해서 자신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強한 者는 弱者의 權利를 박탈할 餘려가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權利를 保障하기 爲해서 人間은 서로 社會契約를 하고 그것으로 人間은 서로 各 個人의 힘을 모음으로써 社會의 內部 혹은 外部로부터 오는 위협을 보나 더 효과적으로 保護할 수 있는 社會를 形成하고 政府를 세우는 데 同意하였다.

11) 그의 論說은 3段階로 되어 있다.

① 人間은 原來 自然狀態, 卽 前 政治的 社會에 生存하고 있었다.

② 이 社會의 成員들이 社會契約를 締結하여 이로서 政府를 樹立하였다.

③ 이 政府의 權力은 ①②가 함축되는 바 社會契約의 內容에 依하여 제한된다는 것이다.

12) 佛蘭西 革命의 政治的 理論을 제공하였으며 Locke, Grotius, Pufendorf에서 많은 影響을 받았다.

13) 로마서 1 : 25ff.

(3) 罪는 他人의 희생으로 自身의 利益을 追求하게 한다. 地上에서의 人間들은 自己保護(Self-Preservation)와 自己利益(Self-Interest)의 保護를 追求할 뿐이다. 使徒 바울은 이와 같은 社會에서 萬若 人間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그들의 社會는 自身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善을 미워하며, 非人間的이고 沒人情하게 될 것이라 말하였다. 그리고 最後에는 압박과 긴장의 때가 올 것이니 이것이 우리의 때라고 쓰고 있다<sup>14)</sup>.

(4) 罪는 우리 人間으로 하여금 地上에서의 樂園을 잃게 하였다. 人間의 罪 때문에 이 地球는 가시와 영경위를 맺게 되었다<sup>15)</sup>. 다시 말하면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가 崩괴됨을 말한다. 이것의 증거가 오늘날의 社會生態에서나 Energy위기에서 明白히 顯示되고 있다. 人間 스스로의 利益의 追求로 우리 人間은 自然과의 調和를 파괴하였으며 이 遊星의 制限된 資源을 개발하여 地球의 잠재력은 파괴되고 있으며 人間은 청지기 職分의 精神을 잃었다.

## B. 예수님의 態度

洗禮 요한이 예수님을 紹介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sup>16)</sup>라고 하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예수님의 所任을 알 수 있다. 우리가 洗禮 요한의 이 말씀에 接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지신 세상 죄가 個人福音(Individual Gospel)이나, 社會福音(Social Gospel)이나의 論難에 빠지게 된다. 個人福音의 支持者들은 예수님께서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세상 죄(Sin of the World)는 各 個人의 罪의 全部를 말한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社會福音의 支持者들은 세상의 죄는 社會制度에서의 非人間的인 分裂의 總罪라고 論駁한다. 前者는 예수님을 영혼의 구세주(Saviour of Soul)로 생각하고 後者는 예수님을 社會改革者(Social Reformer)나 社會의 구세주(Social Saviour)로 생각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이런 Dilema에 빠짐을 피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 그대로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病 고치는 자, 平和의 아들, 平和를 주는 자, 和解者로 예수님의 地上 業務에 관하여 聖經이 明白히 하고 있다. 바울은 에베소, 골로세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 점을 明白히 하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sup>18)</sup>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人間 歷史의 中心的 決定的 事件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리스도는 萬物을 創造者와 被造物간에 다시 義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

14) 디모데 후서 3 : 1-7

15) 창세기 3 : 18

16) 요한복음 1 : 29

17)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B. Zylstra, *The Individual Gospel; Sources and Shortcomings, The Guide : Official Organ of the Christian Labour Association of Canada, April-May 1972, pp. 21-24.*

18) 골로세서 1 : 19f.

나짐으로 그는 復活이며 生命이시다.

과연 그리스도는 社會 改革家는 아니다. 그의 地上 課業은 훨씬 많은 根本的인 것들이다. 그의 業務는 모든 病든 것, 勿論 社會病도 포함하여 그 根源을 찾아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므로 그는 그의 아들을 그 세상의 죄를 담당하도록 보내셨다. 善한 牧者이신 그리스도는 믿음에 거하는 자들이 生命을 얻도록 그리고 豊富히 얻도록 그의 生命을 버린다.<sup>19)</sup> 그리스도는 宇宙의 구속자이시며 聖靈에 의하여 人間은 새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짧은 생애동안 天國의 Message를 전파하며 宣布함을 理解하게 된다.<sup>20)</sup> 그 天國속에 우리의 社會, 政治, 經濟生活이 놓여 있다.

그 生活의 方法은 唯一한 方法밖에 없으며 그 길은 좁은 길이며 그리스도에게로 歸依의 길이다. 이것이 現代 社會秩序(Social Order)와 疎遠, 非人間化의 苦痛을 받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Message이다. “회개하라 天國이 가까이 왔다.”<sup>21)</sup> 하나님께로의 歸依, 罪의 悔改, 即 罪에서의 生의 길로 根本的 方向 轉換이 社會秩序를 바르게 고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선포하길이다.

福音이 내포하는 모든 범위는 그리스도의 宣敎에서 아주 明白하다. 그의 救援은 고침과 새롭음과 人間生活의 全面에서 希望을 가져 온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事業에 關하여 몇 가지 疑問을 품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爲하여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sup>22)</sup> 라고 하셨다. 福音의 宣布와 不幸한 자들의 治癒가 잘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奇蹟들이 不幸한 자들의 새로운 生活의 標示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命하셨다.<sup>23)</sup> 그것은 和解와 平和를 심는 現 歷史속에서 그리스도 제자의 職分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 Ⅲ. 제자들의 社會的 關心

굶주린 大衆들, 가난한 자,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憐憫은 그의 제자들의 제자들의 精神的 共同體에서도 나타나 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이웃 사랑[人類愛]을 내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生活態度이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兄弟 사랑[人類愛]과 區別되어 생각되어 지는 것이라면 基督教의 意味는 理解할 수 없는 것이다. 舊約은 이 점에 關하여 아주 明白히 기술하고 있다.<sup>24)</sup> 그리고 新約에서는 철두철미 이 두 사랑의 不可分

19) 요한복음 10:10.  
20) 누가복음 4:43.  
21) 마태복음 4:17.  
22) 마태복음 11:4f.  
23) 마가복음 6:37, 8:2.  
24) cf, 신명기 6:5, 레위기 19:18.

의 關係를 말한다.<sup>25)</sup>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sup>26)</sup>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sup>27)</sup>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사랑의 誠命은 하나님께서 人間에게 要求하시는 것 중의 要約이다. 그것은 人間을 爲한 創造的 秩序이다. 앞에서 言及한 바 被造物은 奉仕者들이다. 人間은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奉仕者들이다. 이 사랑의 奉仕는 그들의 被造性을 表現하는 것이며 그들이 바로 인간됨(Humanness)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서로 間의 사랑의 奉仕가 人間들로부터 要求하시는 모두라면 그 외 모든 要求들은 이 사랑의 表現과 直結되는 것이다. 이 사랑의 표현에서 正義를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思考에서 우리는 一面에서는 사랑, 他面에서는 正義와 청지기 職分(Stewardship)간의 完全한 關係를 理解하게 된다. 人間의 이 地上에서의 全生活은 사랑의 實現(Reality of Love)과 사랑의 表現(Expression of Love)이다. 우리들의 이웃에 이 사랑을 實現하고 또 表現함에 있어서 正義의 問題가 提起된다. 그러므로 正義(Justice)와 청지기 職分은 사랑의 誠命 다음에 실 수 있는 誠命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地上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이 표현되고 전달되는 特別한 본보기이다.

#### A. 神的 正義(Divine Justice)

正義에 關한 聖經의 背景을 볼 때 注目할만한 것은 正義라는 單語가 人間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關係를 記述하기 爲하여 聖經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眞神인 宗教만이 社會正義(Social Justice), 即 人間들간의 올바른 關係(Right Relation)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注目하고 있다. 聖經은 아주 明確히 Yahweh는 正義의 神(Just God)임을 말하고 있다. 그의 모든 實現方法은 正義이다.<sup>28)</sup>

萬若 言約이 하나님과 被造物間에 特別히 하나님과 人間간의 關係에서 全部라면 正義는 言約構造의 한 性格이다. 言約은 두 部分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命令과 人間의 無條件的인 服從이다. 人間이 服從하면 그의 生命은 祝福을 받고 福된 날을 누릴 것이다. 이 言約의 兩面性의 特徵은 繼續 強調되고 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福을 받으리라.”<sup>29)</sup>

하나님의 正義, 公義는 그의 信賴에 찬 것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가 約束한 바를 그의 百姓에게 준다는 것이며 이런 理由로 하나님의 恩惠와 公義는 서로 긴장과 대립과 마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恩惠는 公義의 表現이다. 이것은 또한 바울의 義로움(Justification)의

25) 마태복음 22:36f.  
26) 로마서 13:10.  
27) 요한 1서 4:7.  
28) 신명기 32:4.  
29) 에레미야 7:23.

가르침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和解의 사업으로 하나님은 罪人을 의롭게 다시 만드신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중으로서 人間들의 原來의 자리에 복귀시키시는 것이다. 이러한 人生觀을 가지고 人間이 믿음으로 이런 義로움을 받아 들인다면 그들의 生活은 다시 神的으로 회복될 것을 說明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聖靈이 주는 善한 生活의 祝福을 경험하게 하고 회복된 被造物인 人間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公義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表現되어지고 있다. 그의 이름은 이미 구약 속에서 存在하고 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sup>30)</sup> 이 이름은 특히 이사야 예언서에서 公義의 天國(Kingdom of Justice)을 세울 자로서 묘사된 메시아의 業務를 記述하고 있다. “義로써 그는 가난한 자들을 審判하실 것이고 正直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判斷하신다.”<sup>31)</sup> “그가 이방에 公義를 베풀리라.”<sup>32)</sup> 이것은 人間の 모든 事件속에서 우리를 公義로 이끄신다는 것이다.

### B. 人間の 正義(Human Justice)

正義는 우리의 이웃 兄弟를 사랑해야 할 方法의 하나이다. 正義는 주님이 人類에게 말씀하신 많은 命令과 말씀중의 하나이다. 또한 正義는 福音의 固有한 元初的 要素이다. 이런 理由로 하나님과 人間과의 言約속에 人間 共同體의 復歸는 正義의 社會로의 回復를 意味한다. 이것은 모세의 책, 지편, 잠언,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아주 明白하다.

그러나 正義의 規範의 內容이 무엇인가를 正確히 定義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우리는 다소 정직(Equity), 공정(Fairness)등의 單語에서 正義의 意味를 暗示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亦是 美, 道德的 사랑이라는 다른 基本的인 規範의 內容을 定義하는데 類似한 어려움에 直面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E. Brunner는 正義의 基督教 概念을 被造物의 하나님 秩序에 一致시키고 있다. 創造者의 儀式에 一致하는 것이 義인 것으로 이것은 人間들 關係에서 주어지는 人間の 法이다. 人間에게 주어지는 義, 不義, 義務, 權利 等の 各人에게 元初的인 것은 被造物의 秩序인데 이것은 創造者의 意志, 뜻이 明白하게 한 것이다.<sup>33)</sup> H. G. Stoker는 우주 속에서 人間の 身分에 대해서 正義를 言及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啓示(Revelation)은 人間地位에 어떤 강한 빛을 준다. 우리가 그 빛에 接하게 될 때 우리는 다음에 注目해야 한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形象으로 創造되었다. 人間은 言約을 履行해야 하고 實現할 소명을 받았다. 人間은 主의 이름안에서 이 宇宙內에서 統治者로 行動하는 하나님의 代理者(Vicegerent of God)로서 지명되었고 人間은 그 소명에 責任을 져야하며 應答을 해야만 한다. 人間은 가장 高貴한 代事로서 부름 받았다. 이처럼 人間은 하나님의 掌中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實現하는데 기여할 業務를 委任받았다. 이 모

30) 예레미야 23 : 6.

31) 이사야 11 : 4.

32) 이사야 42 : 1.

33) E. Brunner, op. cit., 第八章

은 것에서 人間은 하나님에게 責任을 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과 關係하여 人間の 地位와 目的과 機能을 포함하여 人間은 特別한 命令을 받았다. 人間은 王의 子女들로 부름받았으며, 人間은 王의 身分에서 同時에 하나님의 종이다. 이 모든 것은 그의 約束과 特徵이며 그것과 並行하는 命令이 人間에게 주어졌다. 여기에서 人間の 正義와 法과 또한 人權과 規範과 秩序를 찾아야만 한다.”<sup>34)</sup>

Brunner와 Stoker 두 사람은 正義의 傳統的인 定義를 各人의 當爲性에 돌리려는 意圖를 聖經에 密着시킴으로 說明하려고 한다. 人間에게 當爲性은 社會의 脈絡속에서 人間の 獨特한 被造性을 더욱 高貴한 身分으로 만드는 可能性이다. 正義의 規範(Norm)은 聖經의 人間創造, 即 하나님의 形象(God's Imager)에서 그 基礎를 두어야 한다. 人間の 特性이나 被造性을 洞察하면 무엇이 正義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提供하여 준다. 人間은 하나님의 形象대로 創造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의 暫定的인 要約된 解答을 찾을 수 있다. 正義의 規範(Norm of Justice)은 人間이 하나님의 形象者로서 自身을 表現할 수 있는 社會秩序(Social Order)를 要求한다. 다른 말로 表現하면 正義의 規範은 人格實現을 爲한 社會를 要求한다.

소명을 지닌 人間 自身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實現하여야 한다. 이 소명은 이 現實의 歷史性 속에서 많은 여러 種類의 課業의 實現을 意味하는데 正義는 이러한 人間の 文化的 課業 成就를 爲한 社會를 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の 最大의 中心的인 소명의 實現은 그와 같은 社會制度를 要하는 것이다. 正義는 社會制度가 人間存在에 意味있고, 調和되고, 開方된 生活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한 이런 制度를 實現하기 爲한 社會를 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人間の 地上의 많은 文化的 使命中 人間關係뿐만 아니라 自然과 그 資源의 管理와 使用까지 포함된다. 이런 觀點에서 正義 또한 人間生活을 可能하게 하는 物質과 그 資源의 적절한 使用, 保護와 그 自然物에 대한 人間の 愛情의 關心을 높여야 한다.

結論적으로 말하면 正義는 人間奉仕(Man's Service)를 爲한 自由를 必要로 한다. 이런 脈絡속에서 人權을 말하게 된다. 人權은 그리스도 구속사업의 한 열매인 것이다. 구속사업은 根源的으로 人間の 回復를 부여하였으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形象者로서 社會的 文化的 課業의 實現에 信賴性 있는 被造物로서의 回復이다.

### C. 聖經의 觀點

聖經은 現在의 時代와 다른 時代의 狀況에서 쓰여졌다. 어떻게 正義로운 社會가 健立되어야 할 것인가에 關하여 主님이 그의 百姓에게 말씀하신 그 많은 方法이 대체적으로 農業時代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聖經에 照明하여 볼 때 배울 것이 많은 것이다.

(1) 무엇보다 먼저 聖經은 現代의 私有財産의 觀念과는 다르다. 詩篇記者가 “땅과 거기 층만

34) H. G. Stoker: *The Nature and Role of Law*, trans. B. Zylstra, Canada, Tronto, p. 15.

한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sup>35)</sup>라고 노래할 때 그가 말한 바 意味는 主가 땅을 所有하시고 人間은 主님으로부터 그것을 물려 받을 수 있고, 어떤 사정에 따라 그것을 使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民族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 갈 때 가나안 땅은 그들 족속에 따라 수 많은 사람들과 나뉘어 졌다.<sup>36)</sup>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 족속이 生活하기에 充分한 糧食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間의 個別的 差異가 全然 發展되지 않았다.<sup>37)</sup> 땅도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利益을 爲한 땅 투기의 생각이 전혀 없었다.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회년후에 년수를 따라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sup>38)</sup>

(2) 個人에 대한 主님의 祝福은 困窮에 처한 者에게 칭지기 職分으로서 보았다. 빼앗긴 자는 特別한 注意와 關心과 보살핌을 받았다. 主님은 그의 百姓에게 “모든 나의 被造物인 억눌린 자를 爲하여 너희 社會에 그들을 爲한 자리를 만들어라. 그들은 나의 形象대로 만들어졌다. 그들은 돌이나 짐승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課業을 遂行하기 爲하여 좁은 땅일지라도 가져야 하고, 地位가 높은 자는 낮아져야 하고, 너희들 중 낮은 자는 保護를 받아야 하며, 나의 포도원에서 奉仕하도록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具體的으로 困窮한 形態의 人間 즉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들은 正義와 칭지기 特別한 保護 對象者로서 늘 꼽혀지고 있다. 우리는 룻이 그녀 自身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爲하여 어떻게 食糧을 구했는가를 룻기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아스의 個人的인 慈善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社會的 關心이 言約의 共同體 內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뭉치를 밭에 있어 버렸거든 다 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 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sup>39)</sup>

꼭 같은 方法이 부자와 가난한 자 間의 關係에서도 있어야 한다.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擄取하지 말라고 明白히 들었으며, 사실 부한 자는 困窮에 처한 자에 대한 責任이 增加할 뿐이다. “네가 萬一 너와 함께한 나의 百姓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債主같이 하지 말며 邊利를 받지 말라.”<sup>40)</sup> 같은 구절에서 담보로 抵當하기 爲하여 그의 옷을 벗어 주는 사람의 屈辱의인 狀況에서 具體的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다. 債權者는 해가 넘어 가기 전에, 출기 전에 옷을 가져 가도록 해야 한다고 들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唯一한 몸을 감쌀 수 있는 物件이기 때문이다. 부한 자와 貧者間의 財政的인 處事는 가난한 자가 그의

35) 시편 24 : 1.

36) 여호수아 13 :

37) cf, 레위기 25 : 8f.

38) 레위기 25 : 14—23.

39) 신명기 24 : 19.

40) 출애굽기 22 : 25.

생의 根據를 잃도록 해서는 안된다. “사람이 멧돌의 전부나 그 윗쪽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sup>41)</sup> 그 사람은 이 도구 없이는 그의 생을 維持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大地는 擄取당해서는 아니 된다. 오늘날 基督教가 生態學的 危機(Ecological Crisis)의 責任을 지야 한다고 한다. Lynn White는 “基督教는…… 人間과 自然과의 二元論(Dualism)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人間の 純全한 目的을 爲하여 自然을 擄取함이 하나님의 뜻”<sup>42)</sup>이라고 主張하였다. Anold Toynbee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sup>43)</sup>는 말씀으로 20c의 公害도 基督教의 잘못된 思想에서이라고 主張하였다. 基督教가 現代 自然科學과 産業과 環境開發에 많은 役割을 했을지라도 이 環境의 破壞의 結果와 聖經的인 自然觀의 結果는 아니다. 왜냐하면 自然도 하나님의 創造物이며 自然에 대한 人間の 關係는 칭지기적인 關心의 管理人 關係이기 때문이다. 人間은 創造物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受託人이다.<sup>44)</sup> 人間은 그의 이웃 형제에게만 義로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非人間的인 被造物(Non-human Creatures)에게도 義로와야 한다. 人間은 自然界(物質界, 植物界, 動物界)와의 相互關係에서 그들의 限界性을 考慮해야 하며 重視해야 한다.

이런 實證은 레위기 25:1—7에 記述된 안식년에서 볼 수 있다. 땅도 每 7년째는 쉬게 하라고 命하였다. 人間은 聖經에서 보던 自然과 區別된 事實이다. 人間인 被造物은 物質이나 植物, 動物의 創造性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 區別은 自然을 酷使하고 破壞함을 正當化하는 것은 아니다. 人間에게 有用한 限定된 自然資源에 人間은 管理人의 職分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오늘 現時代의 Energy 危機와 生態學的 危機는 聖經의 根據에서 온 結果가 아니라 Renaissance와 啓蒙主義(Enlightment) 時代의 自然에 대한 人間の 칭지기 職分의 聖經의 根據를 拒否한 結果이다.<sup>45)</sup> 人間の 無限한 可能性과 自然資源의 無限한 思想이 定立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思想은 聖經에 適合하지 않다. 主님은 그의 掌中의 모든 自然을 支配할 수 있도록 그 支配權을 人間에게 주어 人間은 東山을 “耕作하라.”고 말씀도 들었지만 同時에 그것을 “保護하라”고도 命令을 받았다.<sup>46)</sup>

#### IV. 正義의 實現

國家는 어떤 特定한 領土 內에서 民族과 部族, 마을간의 相互作用性이 正義의 實現을 爲한 中心的인 行政力을 要할 때 한 社會內에서 發生한다. 이스라엘 百姓은 正義가 實現되는 政治的 統一體인 國家보다 絕對權力이 施行되던 國家와 王들에게 싸여 있었다. 이러한 國家들에게는

41) 신명기 24 : 6.

42) Lynn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in Science* Vol. 155, pp.1203—1207, March.

43) 창세기 1 : 28.

44) International Reformed Bulletin 특집호, Man; God's Trustee in Creation, 1973.

45) International Reformed Bulletin 16th year—fall, 1973—55. Politics, Justice and Jubilee 특히 B, Zylstra, The Bible, Justice and the State.

46) cf, 창세기 1 : 28, 2 : 15, 시편 8 : 6.

福音이 힘차게 자유롭게 힘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즉시 看破할 수 있다. 그러나 正義를 實現할 때는 王들에게는 福音의 빛이 힘을 가졌었다. 왜냐하면 王은 오직 하나의 重大한 業務만 가졌으니 그것은 正義로운 社會, 公正한 社會의 造成이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정의]를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다.”<sup>47)</sup>

### A. 統治는 奉仕의 길

이런 聖經의 빛에서 로마서 13장의 統治權(Governing Authorities)에 關한 有名한 구절을 理解하여야 한다. 權力은 社會의 힘(Social Power)이다. 卽 어떤 一團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행하는 힘이다. 聖經은 分明히 社會秩序(Social Order)에서 權力의 必要를 認定하고 있다. 聖經은 祭祀長, 王, 父母 심지어는 主人의 權威에 關하여 아주 自由롭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權威의 本性에 關하여는 絕對的 必要한 聖經의 빛을 발하여야 한다. 權力이나 權威는 社會關係(Social Relationship)에서 神的인 規範(Divine Norms)의 實現을 爲한 한 方便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外에는 權勢가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하나님이 人間生活을 維持하기 위한 規範들을 만들었다. 權力은 그 規範에 服從하는 자들의 繁榮과 福祉를 爲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바울은 그 問題를 아주 간결하게 要約하고 있다. 權力을 가진 사람은 “너희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다.”<sup>48)</sup>

Nero가 統治하던 그 當時의 Rome皇帝들의 具體的인 統治形態에서 取했던 絕對主義的 政治形態를 바울은 反對하였다. 絕對主義的 政治는 古代나 現代에 있어서 國民은 國家의 利益과 善을 爲하여 存在한다는 思想에서 出發한다. 바울은 그 思想의 反對를 力說하고 있다. 國家와 統治權은 國民의 利益과 善을 爲하여 存在한다. 이것이 극히 간결한 政治를 爲한 福音의 Message이며 現代 民主政治에서도 올바른 表現이다. 政治家(爲政者)는 公僕이다. 그들은 國民의 利益을 爲하여서만 그들의 立法, 司法, 行政을 實行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 利益과 善이 公義인 것이다.

더구나 바울은 現代 民主政治의 根本土臺가 되는 國民主權, 被治者의 同意에 依한 統治, 國民의, 國民에 依한, 國民을 爲한 政府<sup>49)</sup> (The Government of and by and for the People) 등의 思想과는 一致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思想은 政府를 國民의 爲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國家는 事實 “國民을 爲한”(for the People) 것이다. 그러나 “國民의 것”(of the People)은 아니다. 本質에 있어서 國民主權의 概念은 多數의 橫暴(Tyranny of the Majority)와

47) 시편 72 : 1ff.

48) 로마서 13 : 3f.

49) Abraham Lincoln의 Gettysburg Address;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in the world.

投票函에서 有權者를 効果的으로 誘導하는 Elite의 橫暴(Tyranny of an Elite)로 發展하게 된다.<sup>50)</sup> 바울은 모든 課業을 實現하도록 政府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開放政治制度(Open Political System)을 願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는 被造物인 人間을 奉仕者로 만드셨고, 둘째는 人間은 사랑의 종(Servant-of-Love)이 되어야 하고, 셋째는 神的인 規範(Divine Norms)은 正義와 정치적 責任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하고, 넷째는 規範의 표현은 國家와 같은 組織을 必要하게 되고, 다섯째는 이러한 組織은 그들의 召命과 課業을 成就하기 爲하여서는 어느 程度의 權力을 必要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明白히 理解해야 할 것은 社會에서의 權力의 使用은 被造物의 特性인 바 그 범위는 奉仕이다. 그러므로 權力者나 統治者는 神的인 基礎위에 그 自身이 서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게만 속한 權勢와 權利를 主張하여야 한다.<sup>51)</sup> 國家의 權力과 權威는 예수 그리스도의 權威와 權勢에 服從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人間間的 사랑의 政治的인 모습에서 社會秩序를 이룩하고자 함을 意味한다.

### B. 社 會

社會란 單語의 使用은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그 理由는 多様な 定義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思想家들은 社會를 一定한 영역 內에서의 個人 生活의 總體라 定義하며 어떤 目的을 追求하기 爲하여 自祭的으로 形成된 個人들의 團體라고 한다. 이것은 각 個人이 社會의 實在의 基礎라는 個人主義 概念에서 이다. 그에 相反되는 것으로는 普遍主義(Universalism)인데 이는 社會自體가 元初的 根源의인 모든 것을 다 包含하고 있는 하나의 單位라 보는 것이다. 社會內의 그 모든 것은 部分이다. 몇몇 傳統的인 社會主義者들은 이 普遍主義에 집착하고 있다. 이 普遍主義 立場은 全人類는 社會의 元初的인 組織體로서 觀察되었다.<sup>52)</sup>

이 定義에서 보면 社會自體에서 權威의 最終的인 根源을 發見할 수 있다. 聖經에서는 權威의 源泉의 最終的인 것은 社會 그 넘어서이다. 人間을 爲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創造者에서 이다.

그러므로 어떤 社會에 人間의 最終的인 忠誠을 바치는 것이 要求되는 社會는 正當한 社會가 되지 못한다. 人間 個個人의 全的인 忠誠을 要求하는 社會秩序나 命令에 直面하게 될 때는 그와 같은 社會制度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 C. 國 家

앞서 조금 言及한 바 國家는 그 國家의 領土內에 統治權의 基盤위에서 國家의 公義를 實現하

50) International Reformed Bulletin, 16th year fall 1973-55, p. 12.

51) 마태복음 28 : 18.

52) Harold Laski는 이 입장을 옹호함

參考 : B. Zylstra, From Pluralism to Collectivism, New York, 1968, pp. 149-156.

고 他國과의 協同에 政府가 責任을 지는 市民 共同體이다. 國家는 公義의 完全한 總和이다. 公義라 함은 私義(Private Justice)에 對한 말로 私義로 認定하는 것이다. 個人的인 合法的 權利의 例는 個人間的 關係에서 볼수 있다. 社會 構成員間的 關係는 私法(Private Law)에 規定되어 진다. 또한 私的 自治法(Private Communal Law)은 正義의 規範에 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國家가 세운 公共秩序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自治法은 特定한 社會 構成員에 關係되며 各各 그 社會 構成員의 資格을 부여하는 기능에 달려 있다. 그 私法은 그 社會 構成員 關係를 規制하며 權利와 義務, 責任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國家는 公義에 關心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公共法秩序를 세워야 한다. 여기에서의 公共法이란 그 領土內에 存在하는 人間이나 制度는 國家의 法秩序를 면하지 못한다. 이런 法秩序가 要求하고 組織하는 權利와 義務를 말한다. 國家가 부여 받은 神的 義務는 그 領土內에 살고 있거나 住居를 둔 사람에게나 組織體나 制度를 爲한 公義의 實現者인 것이다. 國家는 人間の 善을 爲한 主님의 종인 것이다.

## V. 社會에서의 公義

우리가 살고 있는 社會에서의 公義의 實現 問題中 第一 關心事는 人權問題이다. 一般的으로 基本人權의 思想은 近代社會에 들어와서 비로소 싹트기 始作했고, 民主主義思想의 發展에 맞추어 크게 成長했으며, 世界人權宣言을 宣布함에 이르러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말할 수 있다. 近代의 人權의 觀念은 近代自然法의 產物<sup>53)</sup>로 人間으로서의 當然히 享有하는 權利라는 意味에서 普遍性, 固有性, 不可侵性, 恒久性을 特質로 한다.<sup>54)</sup>

人權의 基督教概念은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에 그 根據를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人間地位의 回復(Restoration)을 內包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이 아니고는 人間은 人間으로서의 權利를 갖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업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基督人이든 아니든 不問하고 人權을 主張함이 正當하다고 認定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自己의 形象대로 創造하셨으므로,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에게 責任이 있는 者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交際하게 예정된 자로서 모든 사람을 同等하게 創造하시었다. 人間은 自己의 特殊한 存在樣式을 如何한 偏見없이 自己自身을 表明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한 被造物이며, 自由가 부여되고 또한 이 自由를 行使할 義務를 지닌 한 被造物이라는 事實이 모든 人間은 萬人 同等의 人間으로 尊嚴性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元初的 權利이며 이 權利는 그가 他者에게 對하여 主張해야 하며 또한 主張할 수 있는 權利이다.<sup>55)</sup> 하나님에 의하여 創造된 人間이 人間으로서의 權利를 가지고 있다고 함은 結果的으로 하나님의 形象으로 創造된 것에 根

53) 自然法은 그 自體가 正當한 것을 意味하며 本來부터 正當하며, 영원불변적이며, 모든 사람과 시간을 초월하여 있는바 正義의 法을 意味한다

54) 韓相範, 「韓國憲法」 普文閣 1965.

55) E. Brunner, op. cit., pp. 76ff.

據를 두고 있다. 人權은 Humanist들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個人 人格의 固有의 尊嚴性에 發見되어 지는 것이 아니다.<sup>56)</sup> 人權은 人間이 創造者 하나님에 依하여 부여받은 尊嚴性에 發見되어 지는 것이다. 이 尊嚴性은 무엇보다 地上에서의 하나님의 形象者인 것이다. 이 神的으로부터 부여된 尊嚴性은 社會에서의 人間の 獨特한 地位와 責任性의 認識을 要한다. 하나님의 形象者로서 이 尊嚴性에서 볼 때 人間은 모든 社會의 構造나 制度를 초월한다고 말할 수 있다. 人間은 어떤 制度나 機構에 依하여 얽매어지거나 노예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最近 소련 社會制度에 反對한 노벨 수상자인 Solzhenitsyn을 同情한다.

이런 觀點에서 社會의 基督教 概念은 開放社會이다. 그 속에서 男女 人間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權利를 가지며, 혹은 그들이 忠誠을 마치고 싶은 最終的 超越的인 價値에 향하는 權利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人間の 이 權利의 行事を 위한 尊嚴性은 自然的으로 自由를 要求하게 된다. 그래서 Calvin은 이스라엘 民族이 에집트 民族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것을 말하는 가운데 “自由는 生命의 切半 以上을 意味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自由의 범위는 人間이 權利를 지니는 社會의 第一 첫 段階인 것이다. 國家는 그 權利를 認定하고 그것을 保護하여야 한다. 國家는 人權의 歷史的 發展過程을 볼 때 이 自由를 높이 評價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自己에게로 오게 하기 위하여 또한 奉仕生活을 위하여 사람에게 自由를 주셨는데 만약 몸과 四肢를 自由롭게 使用하지 못하게 되므로 사람이 이것을 達成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創造의 秩序에 어긋난다. 自身의 몸과 四肢에 대한 權利는 사람의 權利中 가장 最初의이며 基本的 權利이다. 그러므로 人權을, 第一 처음으로 表現한 法律의 하나는 人身保護令이었다. 이 自由의 具體的 實現은 항상 文化的 背景에 지배적 影響을 받게 되는데 西歐 個人主義的 自由主義는 現代社會에서 言論의 自由(Freedom of Speech) 結社의 自由(Freedom of Association) 契約의 自由(Freedom of Contract) 등 현저한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自由中 그 最高性은 財産의 權利(Right to Property)에서 發見되었다. 財産所有者의 階級은 國家의 保護를 받아지고 貧寒한 자는 放置되는 自由와 正義의 追求가 現時代에 確實히 서로 사이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 두 階級間的 不和는 現社會의 崩壞의 한 要素이다.

人權은 認定되어야 하고 正義의 實現에서도 國家에 依하여 高唱되어야 한다. 그러나 權利는 人間에게만 限定된 것은 아니다. 男女 人間社會에서 形成한 各種 制度나 그들이 組織한 各種 團體들도 또한 國家가 認定해야할 權利를 가지고 있다. 公義의 總和者로서 國家는 다른 어떤 것에 依하여 社會構造의 한 영역의 침범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곧 다른 어떤 하나의 희생으로

56) Stoa 哲學과 같이 非人格的 精神의 原理 卽 萬物에 편재해 있는 지혜, 세계이성대 기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의지에 기초하고 있다. 한 인간으로서의 價値는 無限적 이성으로부터 인출된 것이 아니고, 모든 개인은 구체적이며 유일한 <나>인 한 인간으로서 한 존엄한 인간으로서 부름받은 것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의 본질을 보셨다.”(시편139:16)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이사야43:1) 그리하여 회랍철학을 일관한 개성의 원리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재하게 부르시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을 책임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Stoa 철학과 근대 합리주의는 사람의 존엄성이 하나님의 창조적 인격에서가 아니다.



한 부분의 發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國家는 人間生活에 公認하는 모든 社會構造의 意味있고 開放的 發展으로 유도하는 분위기를 創造하고 維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國家는 不和와 抑壓 狀態를 막아야 하며, 自由를 부르짖는 것이 다른 關係를 위태롭게 할 때 國家는 介入해야 하고 必要하다면 과감한 措處를 해야 한다.

## VI. 結 言

20c. 産業社會의 主要한 特徵은 生産의 科學的 發展에 依한 技術이 進歩와 消費이다. G. N. P의 증가를 各國의 主目標로 삼고 그의 다른 部面을 2次的인 것으로 하여 生産과 消費는 社會混亂의 主原因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家庭, 結婚, 教育, 藝術 等 社會의 모든 영역을 좁혀게 되었다. 事實은 國家의 崇高함 그 自體가 經濟發展의 無限한 成長에 依하여 일어나는 여러 사태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고 있다.<sup>57)</sup> 이 극단적인 文化發達의 起源은 18c 시대 啓蒙主義 以後 대두한 人間의 物質的 必要를 無限定 充足시키는데 發展이 있다고 생각한 特別한 思想에서 發見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確信은 一種의 宗教的인 信念을 지녔다. 이 思想은 現社會에서도 지배적인 勢力으로 되었고, 그것은 쉽사리 사라질 것 같지 않다. 特別히 모든 지도적 立場에 있는 多數의 人物(政治, 經濟, 文化, 藝術의 지도자)이 이러한 思想에 집착하고 있는 限은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社會의 혼란한 점에서 성경에 제시된 마와같이 正義와 칭지기 직분의 意識은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病을 경감시키는데 크게 公認할 수 있다고 믿는다.

## 參 考 文 獻

### 國 內 書

- 俞鎮午: 新稿憲法解義, 北朝閣, 1957.  
 李炯鎬: 새 헌법, 三韓出版社, 1963.  
 문교부: 한국 민주주의, 1972.  
 韓相範: 韓國憲法, 普文閣, 1965.  
 韓泰淵: 憲法, 法文社, 1959.

### 譯 書

- Brunner, E., 正義와 社會秩序, 金澤堯譯, 思想界社, 1954.  
 d'Entrève, A. P., 自然法, 裴基玟·金麗洙 共譯, 新雅社, 1958.  
 Paine, Thomas., 人權論, 李佳炯譯, 세계教養全集, vol. 15, 乙酉文化社, 1968.  
 Pound, R., 英美法の 精神, 김중환 역.  
 Patterson, E. W., 法哲學, 嚴敏永·徐熾珪·田源培 公譯, 乙酉文化社, 1963.

57) John Kenneth Galbraith, *The New Industrial State*, 1967. Economics and the public purpose, 1973.

Ranny, A., 政治學概論, 尹天柱 等, 乙酉文化社, 1963.

## 外 書

- Catherwood, S. F., *A better Way*, Inter-Varsity press, London, 1975.  
 Galbraith, J. K., *The New Industrial State*, 1967.  
 International Reformed Bulletin, *Man; God's Trustee in Creation*, 1973.  
 International Reformed Bulletin 16th year-fall 1973-55, Politics, Justice and Jubilee.  
 Rozak, T., *Where the wastel and Ends*, New York, 1973.  
 Rushdoony, R. J., *This Independent Republic*, the Craig press, 1964.  
 Stoker, H. G., *The Nature and Role of Law*, tran., B. Zylstra Tronto, Canada.  
 Tayler, E. L. H., *The Christian Philosophy of Law, Politics and the State*, the Craig press, 1969.  
 White, L.,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in Science*, vol. 155, March, 1967.  
 Zylstra, B., *From Pluralism to Collectivism*, New York, 1968.  
 Zylstra, B., *The Individual Gospel, Sources and Shortings*, The Guide: Official Organs of the Christian Labour Association of Canada April-May, 1972.